



민중당



▲박근혜 탄핵촛불 직전인 2016년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종훈국회의원(현 민중당 소속)이 '#나와라_최순실'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모든 정치인이 눈치볼 때
가장 먼저 『나와라 최순실』을 외쳤던 민중당 국회의원.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탄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촛불 이후 우리 국민들은
힘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투(#Me_Too)운동으로 성평등한 나라를 향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자주적인 나라를 향해,
코로나19 위기극복으로 더욱 안전한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로박근혜당 모조리 퇴출



도로박근혜당 퇴출 국회의원 특권폐지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현) 민중당부산시당 코로나19 대책본부장

8 김진주

민주노총 후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사하구을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8	민중당	김진주	여	1976. 03. 02. (44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급식실 조리원)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현)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부산지부 지부장 (현) 민중당 부산시당 코로나19 대책본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4,000	34,000	30,000	고지거부	없음	병역의무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315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	611	없음	없음		
배우자	3,704	없음	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사하구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근속수당 한 푼 없었고,
일하다 다치면 보상은커녕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무기 계약은 꿈도 꿀 수 없었고, 2년마다 재계약 걱정하며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저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힘을 모으니 일터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치도 바꾸고 싶습니다.
썩은 국회를 노동자·주민의 '직접정치'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마스크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가 되겠다.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능기고.'

마스크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던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교육청과 사하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개학 이후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교육청에 전달했고,
개학에 맞춰 부산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하구청에도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라고 민원을 넣었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와 사하구를 연결하는 '사하구 주민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힘을 키워 직접 국회를 통제합시다.
일 안 하고 월급만 받는 국회를 바꿉시다.

국민의 힘을 키우는 새정치, 민중당과 김진주가 시작하겠습니다.

사하구을 국회의원 후보
김진주 드림.

